

These days, the fashion industry is huge. You can even buy designer jeans, something that amuses me somewhat. The problem with fashion is that it changes. I read recently that red is the fashionable colour in women's clothes right now. Meanwhile black is never really out of fashion. However, I must admit that I had never realised that black was ever 'in fashion.'

The idea of fashion 'spills over' into the world of religion. Yes, we have 'designer gods.' If you could design your god, what would you come up with? Perhaps you could carve an image and worship it. Well, that has already been done, many times. The prophet Isaiah points out just how ridiculous that is.

요즘은 패션 산업이 엄청납니다. 심지어 디자이너 청바지도 살 수 있는데, 이는 어느 정도 저를 흥미롭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패션의 문제는 그것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빨간색이 요즘 여성복에서 유행하는 컬러라는 것을 읽었습니다. 한편 블랙은 한번도 정말로 유행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블랙이 언제나 '유행 (인 패션)'이었다는 것을 저는 한번도 깨달은 적이 없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패션의 아이디어가 종교의 세계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디자이너 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신을 디자인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도 이미지를 조각해 그것을 숭배할 것입니다. 이는 이미 여러 번 행해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인지 지적합니다.

Isaiah writes about a man cutting down a tree. He uses some of the wood to cook his meal. Some of it he uses to make a god for him to worship. Isaiah 44:17, *From the rest he makes a god, his idol; he bows down to it and worships. He prays to it and says, "Save me; you are my god."* Then Isaiah concludes that such a man is *deluded*, his *heart misleads him* (44:20).

Other people see god in nature. They worship birds, or animals, or plants and trees. A slightly different version suggests that the universe is god, yet their god is greater than the universe. (Try and work that one out. I can't.) That god is impersonal. In addition, that god is only known through what he/she/it has made.

이사야는 나무를 베고 있는 한 남자에 관해 적습니다. 그는 그 나무의 일부를 사용해 음식을 요리합니다. 그 중 일부로는 신상을 만들어 섬기는데 사용합니다. 이사야 44:17,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리고 이사야는 그런 사람은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었다고* (44:20) 결론짓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자연에서 신을 봅니다. 그들은 새나 동물, 혹은 식물과 나무를 숭배합니다. 약간 다른 버전은 우주가 신이지만, 그들의 신은 우주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십시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신은 비인격의 신입니다. 게다가 그 신은 그 신이 만든 것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You could even say that the meaning of life is 'nothing.' In other words, life is meaningless. There are many variations on this theme, from Buddhism through to Christian Science. The former seeks enlightenment. This, to me, is elitist, for very few can ever attain it. The latter is another form of spiritual blindness. Christian Science teaches that there is no such thing as sin, sickness or disease.

An extreme faith is atheism. Yes, I meant to use the word 'faith'. At the centre of atheism is the belief that science can answer all questions. We could even say that atheists worship science. Little do they realize that the study of science is grounded on a Christian worldview. It would be far better, however, if they saw the Intelligent Designer behind the wonder of nature. (Further discussion of these issues must wait another day.)

인생의 의미가 '무 (nothing)'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생은 의미 없는 것입니다. 불교부터 크리스천 사이언스교에 이르기까지 이 주제에 관한 많은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전자는 깨우침을 구합니다. 저한테 이것은 엘리트주의인데, 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후자는 또 다른 형태의 영적 무지입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교는 죄라든가 병, 혹은 질병 같은 것은 없다고 가르칩니다.

극단적인 믿음은 무신론입니다. 네, 저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려 했습니다. 무신론의 중심에는 과학이 모든 질문들에 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과학을 숭배한다고 까지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과학의 연구가 크리스천의 세계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자연의 경이로움 뒤에 있는 지적 설계자 (Intelligent Designer)를 보았다면, 훨씬 더 나왔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른 날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What would well-known, militant atheist, Richard Dawkins, say if, after he died, he met God? When asked this question, he replied, quoting the atheist, Bertrand Russell, “Sir, why did you take such pains to hide yourself?”

God will surely reply, “Why didn’t you open your eyes and see what I have done? You heard how my Son, Jesus, died on the cross to pay the price for sin. Why did you ignore the truth, when it was so plain? Why did you refuse to believe?” For, we Christians know that ignorance and unbelief are no excuse in the presence of our Creator and Redeemer. We read in Romans 1:18, ***The wrath of God is being revealed from heaven against all the godlessness and wickedness of men who suppress the truth by their wickedness.*** As someone once said, ‘**There are none so blind as those who refuse to see.**’ Belligerent ignorance is no excuse in God’s sight.

만약 그가 죽은 후 하나님을 만난다면, 저명한 공격적 무신론자 리처드 도킨스 (Richard Dawkins)는 뭐라고 할까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무신론자인 버트런드 러셀 (Bertrand Russell)의 말을 인용해 답했습니다, “선생님, 왜 그렇게 자신을 감추려 애쓰셨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이렇게 답하실 것입니다, “너는 왜 눈을 뜨고 내가 행한 일을 보지 않았느냐? 내 아들 예수가 죄값을 치르기 위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듣지 않았느냐. 것처럼 명백한 진실을 왜 못 본척하였느냐? 왜 믿기를 거부하였느냐?”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의 창조주이자 구세주 앞에서 외면과 불신은 변명이 될 수 없음을 압니다. 로마서 1:18 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누군가 말했습니다,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처럼 눈 먼 사람은 없다.**’ 적대적인 외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We can have some sympathy for those who want to find God in nature. After all, nature is God’s creation. But, God wants us to worship Him, not what He has made. Someone else has said, ‘God has made us in His image. But we return to Him the compliment and make Him in our image.’ In other words, we think of God being just like us. Clearly, that’s not how we understand the God of the Bible. We can also understand those who worship an object (an idol). We don’t agree with them. Rather, let’s note that all people have an inbuilt desire to worship. Instead, we worship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자연에서 신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 결국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이 만든 것이 아니라, 그분을 경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께 답례로 우리 형상을 따라 그분을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우리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사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섬기고자 하는 내적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목합시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섬깁니다.

Among the world’s religions, only three can be classed as ‘religions of the book’—Judaism, Islam and Christianity. All three claim to worship God, who has revealed Himself. For Judaism, He is the God of the Old Testament. For Islam, He is Allah, revealed through his prophet, Mohammed. Yet, for these two religions, God isn’t personal. He’s not knowable in a way that we can have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Him. I don’t want to be unfair to these two religions. Yet, they’re set apart from Christianity. For, Christianity, at its heart, is not a religion. Instead, it’s based on faith. Our right relationship with God comes through faith in the Lord Jesus, God’s Son. And so we read in John 1:12, ***Yet to all who received him,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What we’ve considered, so far, has been a brief look at religious thought. It hasn’t been comprehensive, though I’ve tried to be fair. Before getting to the heart of Christianity, I want to ask you what kind of God you’d prefer to worship.

세계의 종교 가운데, 단 세 종교만이 ‘경전의 종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 이 세 종교는 모두 스스로를 나타내셨던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합니다. 유대교에서

그분은 구약의 하나님입니다. 이슬람교에서 그는 선지자 모하메드를 통해 나타내셨던 알라입니다. 하지만, 이 두 종교에서 하나님은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개인적 관계를 맺을 만한 방식으로 알 수 없습니다. 이 두 종교를 부당하게 취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독교와 구분됩니다. 그 본질에 있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대신 기독교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을 통해 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12 에서 적고 있듯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까지 우리는 종교적 생각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공정하려고 노력했지만, 포괄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기독교의 본질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신을 섬기고 싶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Well, I don't expect an answer right away. Instead, let's consider what kind of God you and I would *want* to worship. Clearly we want a God who is far more intelligent than we are. Like the God of the Bible, we want Him to be knowable, loving and kind. We want Him to care for us, provide for us and watch over us as He guides us in His ways.

Within limits, we want Him to fight for us and with us and keep us from evil, from anything that could harm us. But, if we think like this it shows that we want a God who is cross between Santa Claus and Superman. We simply cannot make the God of the Bible in our image or create Him in our imagination.

지금 바로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에 여러분과 제가 어떤 신을 섬기고 싶은지 생각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우리보다 훨씬 더 지적인 신을 원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처럼, 우리는 그가 알 수 있고, 다정하며 자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가 그의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면서 우리를 보살피고,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도 내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싸우고 악으로부터, 우리를 해칠 수 있는 그 어느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는 우리가 산타클로스와 슈퍼맨 그 중간쯤 되는 신을 원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을 우리 형상대로 만들거나 우리 상상대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What sets Christianity apart from any religion? The cross! Who would ever think to make crucifixion central to faith? Crucifixion was the death penalty for common criminals. To the world, it is utter foolishness that the Saviour of the world should die such a shameful death! It's unthinkable that God would allow His precious One and only Son to suffer such a cruel death. And, how could He allow Him to die for sinners? It's almost beyond belief!

Paul writes in his letter to the Romans, 5:7, ***Very rarely will anyone die for a righteous man, though for a good man someone might possibly die.*** In times of war, men and women have sacrificed their lives for the sake of others. Their deaths have had long-lasting effects. We, their descendants, are grateful. But those deaths cannot save us from the wages of sin. They cannot restore a broken relationship with God.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분 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죽음이 믿음의 중심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십자가 죽음은 일반 범죄자들에 대한 사형이었습니다. 세상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구세주가 것처럼 수치스럽게 죽어야 한다는 것은 완전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소중한 독생자를 것처럼 잔인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가 죄인들을 위해 죽도록 하실 수 있습니까? 이는 거의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보낸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5:7,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흔 있거니와.*** 전쟁이 나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목숨을 희생합니다. 그들의 죽음은 오래 지속되는 효과를 갖습니다. 그들의 후손인 우리는 이를 감사히 여깁니다. 하지만 그러한 죽음은 우리를 죄값에서 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Truly, we want our God to be powerful to save us from sin. God will be our hero, the One who rescues us. We want Him to be faithful, to keep His promises. And, above all, we want Him to help us get to know Him. A god who is remote and disinterested cannot help us. An unpredictable god who requires

an endless struggle for us to do good deeds cannot help us. Any god who needs constant calming down will be unable to identify with our weaknesses.

What we find, as we read the Bible, is the Lord Jesus Christ is just what we need. But, he's not what we'd expect. We need His death for us on the cross. His power is revealed through what appears to be weak. Listen again to 1 Corinthians 1:18, ***For the message of the cross is foolishness to those who are perishing, but to us who are being saved it is the power of God.*** Here, the apostle Paul makes two main points, centred on the cross of Christ.

실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웅, 우리를 구할 유일한 분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신실하고 약속을 지키기 원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멀리 떨어져 무관심한 신은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도록 요구하는 예측할 수 없는 신은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끝없는 수양을 필요로 하는 그 어떤 신도 우리의 약한 점들을 공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기대한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그의 십자가 죽음이 필요합니다. 그의 힘은 약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통해 드러납니다. 고린도전서 1:18 말씀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해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이야기합니다.

1. The foolishness of the cross

To the ancient Greeks, philosophy was most important. They loved to discuss wisdom. (Philosophy means *love of wisdom.*) But there were as many different philosophies as there were philosophers. Most probably the Christians in the church at Corinth brought their philosophical views into the church. As a result different groups began to develop behind each leader.

Paul writes about this earlier in 1:10, ***I appeal to you, brothers,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that all of you agree with one another so that there may be no divisions...*** Division only leads to quarrelling. Paul considers the Corinthian church's division over who baptised their members. He concludes in 1:17, ***Christ did not send me to baptise, but to preach the gospel—not with words of human wisdom, lest the cross of Christ be emptied of its power.***

1. 십자가의 어리석음

고대 그리스인에게 철학은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지혜를 논하기 좋아했습니다. (철학은 지혜에 대한 사랑을 뜻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철학자만큼 많은 종류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의 크리스천들은 그들의 철학적 견해를 교회에 소개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각자의 리더 하에 다른 그룹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1:10 에서 이에 대해 적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분쟁은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누가 그 멤버들에게 세례를 주었는지를 두고 벌어진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생각합니다. 그는 1:17 에서 이렇게 결론짓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으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John MacArthur writes, *'When man elevates his own wisdom he automatically attempts to lower God's wisdom.'* God's wisdom conflicts with much of what we call human wisdom.

Sam Harris, an atheist, writes, *'All complex life on earth has developed from simple life-forms over billions of years.'* He writes this without any evidence to prove his point. In fact, complex life cannot 'evolve' from simple life-forms. It's just not possible. This theory disregards the laws of nature. Yet it's the laws of nature that he claims to uphold. He continues, *This fact no longer admits of intelligent dispute.* This statement is very revealing. Again he writes, *If you doubt that human beings evolved from prior species, you may as well doubt that the sun is a star.* Among other things, what Sam Harris writes defies logic. I'll mention just one issue. His statement that evolution is a fact abuses logic. Yet he would claim to be logical in his conclusions.

존 맥아더는 적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지혜를 높일 때 그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낮추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인간의 지혜라 부르는 많은 것과 상충합니다.

무신론자인 샘 해리스 (Sam Harris)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복잡한 생물은 수억 년에 걸쳐 단순한 생명체로부터 발전해왔다.' 그는 그의 논점을 입증할 어떠한 증거도 없이 이렇게 적습니다. 사실, 복잡한 생물은 단순한 생명체로부터 '진화'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그냥 불가능합니다. 이 이론은 자연의 법칙을 무시합니다. 그럼에도 그가 옹호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적습니다, *이 사실은 더 이상 지적 논쟁의 여지가 없다.* 이 주장은 매우 흥미로운 점을 보여줍니다. 또다시 그는 적습니다, *만일 당신이 인간이 이전의 종으로부터 진화해왔다는 것을 의심한다면, 해가 별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것과 같다.* 무엇보다도, 샘 해리스가 적고 있는 것은 논리에 어긋납니다. 한가지 문제만 언급하겠습니다. 진화가 사실이라는 그의 주장은 논리의 남용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의 결론이 논리적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His form of abuse is called *poisoning the well*. For, you see, what he's really saying is that if you believe in creation then you're not intelligent. Frankly, if that's the best that Sam Harris can do then his books would be better used for feeding worms.

Sam Harris cannot admit that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If he agreed to that, then he'd have to accept that he's a sinner and that God punishes sin. His worldview cannot admit that Jesus was crucified for our sins. To him, this is utter foolishness. And so, his argument for evolution is close to moronic [= stupid/foolish]. Note Paul's words in 1:18 about the cross. ***For the message of the cross is foolishness to those who are perishing...*** The Greek word for *foolishness* is the one that gives us the English word, moron.

그의 남용의 형태는 '우물에 독을 넣는 오류'라고 불립니다. 그가 실제로 말하고 있는 것은 만일 당신이 창조를 믿는다면 지적이기 않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이것이 샘 해리스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면 그의 책들은 벌레를 먹이는데 쓰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샘 해리스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가 여기에 동의한다면, 그가 죄인이고 하나님은 죄를 벌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의 세계관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박히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에게 이는 완전한 어리석음입니다. 따라서 진화에 대한 그의 논쟁은 거의 저능아 [=바보천치/멍청이]에 가깝습니다. 바울이 1:18 에서 십자가에 관해 한 말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어리석음 (foolishness)***을 뜻하는 그리스 단어가 영어 단어, moron 의 어원입니다.

Perhaps the idea that God would send His Son to take on human form, be crucified and raised from the dead is too simple. That the death of Christ provides the way for you and me to be forgiven and to be reconciled to God *is* foolish to the natural man. For, Christ died, nailed to a piece of wood, on hill outside Jerusalem. He died in a country that wasn't even a world power.

Perhaps the hardest thing for people like Sam Harris to accept is that there's nothing we can do to save ourselves. Can you see how this is nonsense to those who do not believe? But Paul uses a stronger term than unbelief. 1:18, ***For the message of the cross is foolishness to those who are perishing...*** These people, who are perishing, reject Christ. They are on their way to eternal punishment.

아마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태로 그 아들을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박히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다는 아이디어는 너무 단순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여러분과 제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을 제공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밖의 동산에서 나무 조각에 못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심지어 강대국도 아닌 나라에서 죽었습니다.

아마도 샘 해리스 같은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불신보다 더 강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1:18,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멸망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The ***message of the cross*** is shorthand for speaking about the person and work of the Lord Jesus. It includes the entire gospel, God's plan to rescue His people. Because the cross is the high point of God's plan, it's foolish to reject His revelation and thus perish. Paul writes in 2:1, 2, ***When I came to you,***

brothers, I did not come with eloquence or superior wisdom... For I resolved to know nothing while I was with you except Jesus Christ and him crucified.

Human wisdom often cannot comprehend the cross. To the natural mind, the cross is offensive. It's unacceptable and weak. For the natural mind wants to save itself. And so the world would rather focus on humanity's achievements. Worldly belief seeks salvation in good works. But we know that we're saved by grace and grace alone.

십자가의 도는 주 예수와 그분의 사역에 대한 줄임 말입니다. 이는 복음 전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 계획의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하고 멸망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바울은 2:1, 2 에서 적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인간의 지혜는 종종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불쾌한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고 약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마음으로는 스스로 구원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은 차라리 인간의 업적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세상적 믿음은 선한 일에서 구원을 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로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압니다.

2. The power of the cross

We read in 1 Corinthians 1:18, ***For the message of the cross is foolishness to those who are perishing, but to us who are being saved it is the power of God.*** It's the cross that divides humanity.

Earlier, Paul spoke about the church dividing over baptism. Recall his words in 1:17, ***For Christ did not send me to baptize, but to preach the gospel—not with words of human wisdom, lest the cross of Christ be emptied of its power.***

Sadly, arguments over baptism have caused great division in the church over the years. Paul doesn't call it foolish, but I will. OK, I'm Presbyterian and I'm very happy with our reformed view of baptism. But it should never cause us to refuse fellowship with those who hold to a different view.

Paul is not concerned here in 1 Corinthians about these issues. So too, people outside of the church have no interest in who baptized you. Nor are they concerned about when and where you were baptized. Instead, it is the cross that divides the world.

2. 십자가의 능력

고린도전서 1:18,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인간을 나누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앞에서 바울은 세례를 두고 나뉘어진 교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1:17 에서 그가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으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슬프게도, 세례를 두고 벌어진 논쟁은 여러 해 동안 교회 내에 큰 분쟁을 야기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어리석다고 하지 않았지만, 저는 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저는 장로교도이고 세례에 대한 우리의 개혁적 관점에 매우 만족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바울이 여기 고린도전서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문제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교회 밖의 사람들 역시 누가 세례를 주었는지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세례를 받았는지 역시 그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대신, 세상을 나누고 있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There are only two groups of people, ***those who are perishing*** and ***those who are being saved***. Again, note the divide: People are either ***being saved*** or ***perishing***. There's no middle ground. At the same time, notice that salvation is an ongoing process. We are ***being saved***. Salvation will continue until the Lord calls us home, to heaven.

So it is, that Christians are often criticised for not being perfect. Well, no one is perfect, believer and unbeliever alike. *But*, there is a difference. Those who are saved are in a right relationship with God, *now*. This is the power of the cross. Listen again to 1:23, ***We preach Christ crucified: a stumbling block to Jews and foolishness to Gentiles, but to those whom God has called, both Jews and Greeks, Christ the power of God and the wisdom of God.***

세상에는 두 그룹의 사람들만 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받는 자들**. 다시, 그 구분에 주목하십시오: 사람들은 **구원받거나 멸망**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동시에 구원이 진행중인 과정이라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구원받고 있습니다**. 구원은 주께서 우리를 그 집, 하늘나라로 부르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크리스천들은 종종 완벽하지 못함에 대해 비난 받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아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들은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1:23 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Briefly, let's note that God's power is first seen in His creation. Out of noth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Literally, He spoke the creation into existence. For example, Genesis 1:11, ***Then God said, "Let the land produce vegetation: seed-bearing plants and trees on the land that bear fruit with seed in it, according to their various kinds." And it was so.***

We see God's power in calling Abraham to leave Ur and later arrive at Canaan (the land God later promised to Israel). Many years later, God's power is revealed in the rescue (redemption) of His people, Israel, from Egypt. In the book of Judges we read about how God delivered His people time and time again. Despite the fact that they rebelled against Him, God heard their cries and saved them.

간략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피조물에서 처음 보여졌다는 것을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11,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하나님의 능력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우르를 떠나 후에 가나안 (하나님께서 후에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는데서 보여집니다. 여러 해 후에,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하시는 것 (구원)에서 드러납니다. 사사기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몇 번이고 그 백성들을 구하셨는지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반항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그들을 구하셨습니다.

Can Richard Dawkins really claim that God has hidden Himself? Not at all! Rather, it's better to say that Richard Dawkins has ignored the evidence. Like the proverbial ostrich, he has put his head in the sand. He ignores the evidence. For us, who believe, the greatest example of God's power is the resurrection of the Lord Jesus Christ from the dead. We read in Romans 1:4 that the Lord Jesus ***was declared with power to be the Son of God by his resurrection from the dead.***

1 Corinthians 1:19 is a serious verse. ***"I will destroy the wisdom of the wise; the intelligence of the intelligent I will frustrate."*** This quotation from the prophet Isaiah (29:14) emphasises that human wisdom will be destroyed. Finally, at the return of the Lord, Jesus will reign supreme and unopposed. Then, all people will know Him as ***Lord of lords and King of kings.*** (Revelation 17:14).

리처드 도킨스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감추셨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오히려 리처드 도킨스가 그 증거를 무시했다고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속담에 나오는 타조와 같이, 그는 그의 머리를 모래 속에 박고 있습니다. 그는 증거를 무시합니다.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의 가장 큰 예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4 에서 적고 있듯이, **주 예수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9 은 생각해 봐야 할 구절입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사야 (29:14) 선지자를 인용한 이 절은 인간의 지혜가 멸해질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어떤 반대 세력도 없이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라**고 알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14).

The message of the cross is a word of hope. Christian friends, we read in Romans that we've been buried with Christ in baptism and raised to new life with Him (6:4). In Ephesians the Holy Spirit assures us that we've been made alive with Christ and are saved by God's grace (2:5). In Christ, we're now

seated with Him in the heavenly realms (2:6). Furthermore, heaven is where we belong. Our citizenship is in heaven (Philippians 3:20).

What would you say to someone who ‘turns a blind eye’ to this good news? One word comes to mind, it is *foolishness*.

십자가의 도는 소망의 말입니다. 크리스천 동료 여러분, 로마서에서 적고 있듯이,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 그와 함께 새 생명으로 들어올려 졌습니다 (6:4). 에베소서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 받았고 은혜로 구원 받았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2:5).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함께 하늘에 앉힘 받았습시다 (2:6). 또한 하늘은 우리가 속한 곳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20).

이러한 복음을 ‘못 본 척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건 *어리석음*입니다.

The great news of the gospel centres on the power of the cross. For the cross is where the Lord Jesus suffered and died. And He rose from the dead so that you and I, through faith in Him, might know God’s salvation. The rest is up to you and to me.

Trust in the Lord Jesus death for you. Receive Him as your Lord and Saviour. Don’t be blinded by the foolish wisdom of the world.

When you and I receive Jesus as Lord and Saviour we know that we have come under the power of the cross. We have assurance of a right relationship with God, forgiveness of sin and eternal life.

Friends, how is it with you? You either join with those who are perishing, or you’re united to Christ by faith. Remember, there is no middle ground. 1 Corinthians 1:18, ***For the message of the cross is foolishness to those who are perishing, but to us who are being saved it is the power of God. Amen***

복음의 놀라운 소식은 십자가의 능력에 있습니다. 주 예수가 고난 당하고 죽은 곳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 예수께서 죽으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십시오. 세상의 어리석은 지혜에 눈이 멀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 하에 온 것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멸망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거나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중간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18,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